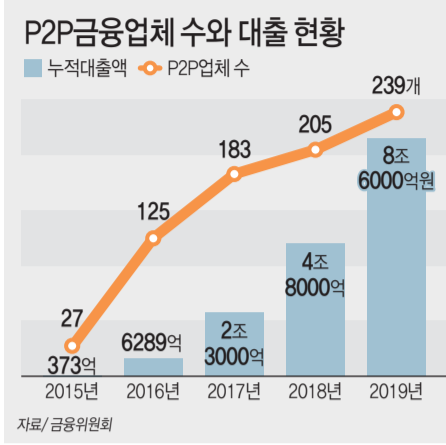


PF상품 부실로 P2P금융도 '패닉'... 연체율·원금손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1월비 2월 연체율 증가 업체 12곳
한 달새 연체율 2배 증가한 업체도
투자자 "주식은 미리 빼놓았지만
P2P는 상환기관까지 못 빼" 답답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임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시네마 복합시설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구·경북에 위치한 공사장이 대부분 일시 중단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업계 1위인 테라펀딩 외 대다수 업체도 수익감소로 정상 상황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연체율 증가가 부동산에 이어 개인·소상공인 대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으면서 개인·소상공인 대출을 전

로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총 239개 P2P 업체 중 상당수 업체는 협회에 가입되지 않아 실제 연체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 외부에서는 연체가 뻔히 예상되는 상품을 리파이낸싱해 돌려막는 등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각종 꼼수가 넘친다"며 "실질 연체율은 공개된 숫자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리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연체율이 증가하더라도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투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어서다. 이날 P2P투자 관련 포털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상환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며 "주식은 미리 빼놓는데, P2P는 오르는 연체율을 보면서 상환기간까지 뺄 수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는 글이 줄을 이었다.

현재 몇몇 P2P업체는 코로나19 사태 가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상품출시를 미루거나 상환기간을 1개월 단위로 축소해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펀다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가 얼마나 이어질지 가능할 수 없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셰이프플랜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현재 차주분들도 몇 개월 유예를 드리고 싶지만 또 투자자입장에서 만기유예에 민감할 수 없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르게 차주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빠르게 돈을 빌려주고 갚을 수 있도록 상품의 상환기간을 1개월 단위로 축소해 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코로나에 조업중단 기업 확산

“리스크 보장 정책성보험 절실”

보험연구원 조업중단리스크 보고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테러,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중단 등에 의한 기업의 휴지(조업중단)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의 보장공백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 제고,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5일 발표한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 휴지손해보험 계약건수는 1458건으로 나타났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무역분쟁 등의 사태로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노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무역제재, 테러, 감염병 등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일 평균 미수금 2246억... 9년 만에 최대

>> 1면 '빛내 투자한 개미들'서 계속

본인의 돈이라면 주가가 하락해도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신용융자로 돈을 빌렸다면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특히 CFD는 주가가 10%만 하락해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실제 신용융자규모가 커지면서 이달 주식 반대매매규모는 약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규모는 하루평균 13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미 '강동계좌' 속출 우려

미수금 규모는 9년 만에 최대 수준이

다. 해당기간 하루평균 미수금 규모는 2246억원으로 월간 기준 2011년 8월(2644억원) 이후 8년 7개월 만의 최대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이고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미수거래 투자자들이 3거래일 후 돈을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남은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어 개인투자자의 '강동계좌'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힘이 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힘이 되는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스운용 NH신용 NH농협카드

함께 만드는 건강한 대한민국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NH 농협